

와세대대학교대학원 일본어교육연구과

석 사 논 문 개 요

논 문 제 목

한국의 일본어 교육에 있어서 「문화이해」의 과제에 관한 연구
—중등교육을 중심으로

한 만 기

2007년 3월

제1장 문제의 소재와 연구의 목적

21 세기는 글로벌화와 정보화 시대이다. 사람·물건·정보의 이동이 활발해져서, 이문화(異文化)권 사회나 사람과의 접촉의 기회가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언어교육은 언어만의 교육에 머무르지 않고, 언어나 문화의 차이를 넘어 상호 협력과 이해를 도모하는 교육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언어교육의 패러다임(paradigm)의 변화를 볼 수 있다.

새로운 언어교육의 패러다임은 단순히 언어 기능의 습득이 아닌, 상대의 문화의 이해를 주요한 목표로 하고 있다. 세계 각국은 외국어 교육에 문화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국의 일본어 교육도 「문화 이해」를 교육의 주된 목표의 하나로 하여 문화 관련 내용을 학습 소재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일본어 교육의 현장과 연구에서는, 「문화」를 둘러싼 오해와 혼돈을 볼 수 있다.

● 문제는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 「문화」를 둘러싼 오해와 혼란

이 부분에서는 한국의 일본어 교육에 있어서 「문화」가 어떻게 다루지고 있는지를 교육 현장과 연구 현장의 두 분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먼저 교육 현장의 실태를 보기 위해, 고등학교 일본어 교육에서 사용되는 교과서와, 교육 실천에 큰 영향을 주는 대학 입시 문제 가운데 문화 관련 문항을 예로 들어 검토했다.

일본어 교과서와 대학 입시 문제를 대상으로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가 드러났다.

- ① 문화를 단편적이고 주관적인 지식으로서 간주하는 경향
- ② 학습자에게 육성해야 할 능력이 무엇인지 불명료함
- ③ 언어교육과 「문화」를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에 대한 지침이 없음

일본어 교육 연구분야에서는 「문화」에 관해 다음과 같은 논의를 하고 있다.

- ① 「문화 이해」를 위해서는, 넓은 분야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지식을 문화로 보는 관점」
- ② 일본어 학습의 초급 단계에서는 「문화 이해」교육이 필요 없다고 하는 「문화 이해 교육 불요론」

필자는 이러한 오해와 혼돈의 원인을 일본어 교육에 있어서의 「문화」 관련 개념이 불명료성, 일본어 교육을 통해 학습자에게 육성할 힘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의 부재, 그리고, 언어교육과 문화를 통합하기 위한 방법론의 부족이라고 간주했다.

● 연구의 목적과 연구 대상

이 연구는 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음을 목적으로 한다.

첫째는, 한국의 연소자 일본어 교육에 있어서의 「문화 이해」 교육의 이론적인 틀을 모색하는 것이다. 두번째는, 이론적인 틀을 통해 한국의 일본어 교육 활동의 지침이 되는 「교육과정」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한국 일반계 고등학교의 일본어 교육을 대상으로 한다. 학습자의 숫자와 개발되어 있는 교과서의 종류로부터 생각해 볼 때, 한국 일본어 교육의 주된 특징은 일반계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 나타나 있기.

제2장 일본국외의 연소자 일본어 교육에 있어서의 말과 「문화」의 통합

2장에서는, 일본 이외에서 이뤄지는 연소자 일본어 교육에 있어서의 「문화 이해」 교육의 이론적인 틀을 모색했다. 이를 위해 일본어 교육에서 문화는 어떻게 다루어져 왔는지를 살펴보고, 「언어교육과 문화의 통합」이 어떻게 가능할지를 언어능력관을 중심으로 고찰했다. 또한, 이 두 가지 고찰을 바탕으로 하여 일본 이외의 연소자 일본어 교육에 있어서 「문화 이해」 교육의 이론적인 틀로서 「언어 문화 이해 교육」을 제안했다.

일본어 교육에 있어서의 「문화관」을 고찰한 결과, 두 가지 큰 흐름을 살펴 볼 수 있었다.

- ① 「가시적인 문화」에 초점을 둔 교육으로부터 일상생활에 밀착되어 있는 언어 행동 등 「비가시적인 문화」를 중요시하는 교육으로의 변화
- ② 문화를 고정적, 균질적인 것으로 파악하는 「정태적」 문화관으로부터 문화는 항상 변화하고 다양한 것이라고 간주하는 「동태적」 문화관으로의 변화

「문화관」을 중심으로 한 논의는 본 연구에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했다. (1) 스테레오타입에 빠질 것을 우려하여 문화에 관한 정보나 지식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한가, (2) 일본인과의 교류를 전제로 하는 일본 이외의 일본어 교육은, 일본어의 언어적·문화적 특징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라고 하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논의를 근거로 하여 「문화」를 「일상생활에 밀접하게 관련 있는 언어 행동으로, 사회집단의 구성원이 공유하는 생각이나 가치관이 언어적인 표현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항상 변화하고 있는 동태적인 것」으로 정의했다. 「문화」의 개념을 정의한 후, 일본 이외의 연소자 일본어 교육에 있어서 주요한 과제인 「언어 교

육과 문화의 통합」에 대해 고찰했다. 언어교육의 구체적인 모습을 결정짓는 것은 「언어능력관」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출발하여, 「언어 능력관」을 고찰하였다. 언어능력관은, 「커뮤니케이션 능력(communication competency)」에서 「사회문화 능력(social-cultural competence)」으로, 그리고 「사회문화 능력」에서 「이문화간 능력(intercultural competence)」과 「문화 리터러시(culture literacy)」까지 발전해 왔다. 본 연구는, 「언어능력관」에 대한 비판적인 고찰을 통하여, 일본 이외의 연소자 일본어 교육에서 유의할 것은, (1) 문화의 다양성과 동태성을 고려할 것, (2) 그러나, 동시에 일본 사회나 문화의 공통성·특성을 반영할 것, (3) 일본어에 나타나는 문화적인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고찰을 통하여 일본 이외의 연소자 일본어 교육의 「문화이해」교육의 틀로서 「언어문화 이해교육」을 제안했다. 「언어문화 이해교육」은 일본어 교육을 통하여 청소년의 전인적인 성장을 지원하는 「인간교육」을 목표로 하며, 언어 교육과 문화를 통합한 것이다. 「언어문화 이해교육」의 목표는, (1) 언어 생활과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문화적인 관습·행동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며, (2) 언어학습 활동을 통해 다양한 생각이나 가치관을 이해하며, (3) 적절한 커뮤니케이션·기능이나 문제 해결 능력을 육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필요한 능력은, 언어의 4 기능에 의한 의사소통 능력과 「문화이해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문화이해능력」을 「언어문화 이해 교육」의 목표와 관련 지어 구체적으로 예시하면, (1) 문화적인 관행·행동에 대한 지식, (2) 다른 가치관을 이해하는 관용적인 태도, (3) 이문화적 요소와 만났을 때의 문제 해결 능력·자기 표현·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구축하는 힘이다. 이런 점에서 「문화이해능력」은, 「지식」 「이해」 「기능」의 다양한 측면과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언어문화 이해교육」의 내용으로는 (1) 일본어 운용이나 언어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문화적인 내용, (2) 현대 일본 사회나 일상생활의 다양성을 이해할 수 있는 내용, (3) 학습자에게 의미가 있는 장면으로, 학습자가 관심·흥미를 갖는 친밀한 내용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언어문화 이해교육」 방법으로는, 체험을 통해 이문화와 접촉하기, 학습자 주체와 협동에 의한 이문화 탐구, 그리고 다양한 교육 리소스의 활용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언어문화 이해교육」의 내용과 방법은 고정되어 있다기보다는, 「문화이해능력」의 육성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면 탄력적이고 융통성 있게 활용 할 수 있다.

제3장 한국 일본어 교육의 「문화이해」 교육 분석 :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3장에서는, 한국 중등교육의 「일본어교육과정」을 대상으로 「문화이해」에 초점을 두고 목표·내용·교수방법에 대해 분석했다. 일본어교육과정은, 중등교육에 있어서 일본어 교육활동의 지침이라고 할 수 있다. 분석은, 제2장의 「언어문화 이해교육」의 이론적인 틀을 참고로 실시했다.

교육과정의 「목표」, 「내용」, 「교수·학습방법」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점이 나타났다.

① 「목표」에 있어서의 문제

「문화이해」에 관련하여 교육과정의 목표는 「체계성」이 결여되어 있다. 「총괄 목표」와 「하위 목표」가 동일한 레벨로 진술되어 「문화이해」교육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문화이해」에 관련된 목표가 추상적이고, 구체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학습자에게 육성해야 할 능력이 무엇인지에 대한 언급을 살펴볼 수 없다.

② 「내용」에 있어서의 문제

「문화이해」에 관한 내용과 목표의 연계성이 부족하다. 이것은 목표가 갖춰야 하는 조건이 불충분하여 비롯된 문제이기도 하다. 또한 내용선정의 기준이 애매하여 「문화이해」를 위한 내용으로는 부적절한 것이 포함되어 있다. 내용 선정의 명시적인 기준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③ 「교수·학습방법」에 있어서의 문제

교수·학습 방법에 있어서는 교사가 학습 활동에 응용할 수 있는 교수 방법의 소개가 불충분하다. 교육과정이 교육활동의 실제적인 지침이 되기 위해서는 교사가 수업에서 참고로 할 수 있는 교수법의 제시가 필요하다. 또한 「문화」를 언어학습활동과 어떻게 통합할지에 대한 제시가 누락되어 있다. 학생에게 무슨 목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하는 일관성의 관점에서 제시되어야 한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 중등교육의 일본어 교육은, 「문화이해」를 주된 과제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표·내용·방법의 모든 측면에서 「문화 이해」교육으로서의 조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일본어교육과정이 「문화이해」교육의 실질적인 지침이 되기 위해서는, 연소자 일본어 교육의 본질적인 이념과 목표에 의거하여 체계적으로 작성되어야만 한다.

제4장 결 론

● 본 연구의 의의와 향후 과제

본 연구는 최근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일본어 교육에 있어서의 「문화」의 과제를 다룬 것으로서, 이론적인 틀을 모색하고, 한국의 일본어 교육에 있어서의 「문화이해」 교육을 분석한 것이다. 일본 이외 지역의 연소자 일본어 교육에 관한 기존의 연구가, 주로 「현황 보고」 또는 오스트레일리아에 있어서의 「이문화 언어교육」에 관한 것이었지만, 본 연구는 한국에 있어서 연소자 일본어 교육의 본질적인 모습을 「문화이해」에 초점을 두고 분석한 것이다. 또한 한국 국내에서는, 일본어 교육에 있어서 「문화」라고 하는 과제에 관한 연구가, 교과서의 문화 관련 내용의 분석에 치중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문화의 개념」이나 「육성해야 할 능력」 등 「문화이해」 교육의 본질적인 내용을 비롯하여 교육 활동의 지침이 되는 「교육과정」까지 분석의 대상으로 함으로써, 기존의 「문화이해」 교육의 기초와 모습의 타당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 제시한 이론적인 틀에 기초한 실러바스와 수업의 예시는 이뤄지지 않았다. 본 연구의 관점에 입각한 구체적인 실천 연구는 향후의 과제로 한다.

● 한국의 일본어 교육은 어떻게 되어야 할 것인가

· 「교육의 이념」을 되묻는다

연소자 일본어 교육의 본질은 청소년의 전인적인 성장을 지원하는데 의미가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일본어 교육은 청소년의 인격형성과 발달보다는 글로벌화·정보화 시대의 국가 발전에 공헌하는 인재의 육성이라는 실용적·도구적인 관점으로부터 생각되어 왔다. 일본어 교육을 비롯한 외국어 교육은 언어 기능의 습득이라고 하는 도구적인 관점으로부터 인간교육이라고 하는 본질적인 목적으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 「육성할 능력」이라는 관점에서 시작한다

일본어 교육을 인간 교육의 관점에서 생각하면, 일본어 교육을 통해 청소년에게 육성할 능력은 기능이나 지식의 습득 만이 아니라 타인과 관계를 구축하는 능력, 다른 사회와 문화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관용하는 능력, 사고력,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능력 등 종합적인 언어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연소자 일본어 교육의 정책과 실천은 이와 같은 언어능력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 하는 관점으로부터 전개해야 한다.

· 실천과 연구의 통합

교육에 대해 국가와 학교의 역할의 분담이 필요하다. 국가는, 기본적인 가이드라인

을 제시하고 교육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각 학교는 지역이나 학교의 실정을 고려하여 학교 나름의 실러바스를 제작하고 교육 활동을 실시한다. 교사는 학생이 무엇을 할 수 있게 될 것인가 하는 능력 중심의 실러바스를 협동으로 작성해, 그것에 기초한 실천과 그 결과를 다양한 장에서 공개·공유한다. 협력을 통한 연구와 실천에 의해, 현장의 일본어 교육의 질적 향상이 이뤄지고 교사 상호간, 실천과 연구의 통합의 장이 만들어진다.

· 교류를 활성화 한다

직간접적인 교류 활동은 일본 사회나 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할 뿐만 아니라, 일본어를 실제로 사용함으로써 언어적인 유용성도 경험할 수 있다.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교류가 가능하도록 계획하여, 교류가 상호 이해와 배움으로 연결되도록 한다.

이상과 같이, 한국에서의 연소자 일본어 교육은 인간교육이라는 교육의 본질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거시적으로는 교육이념의 관점을 전환할 것, 새로운 언어능력관에 입각한 일본어 교육의 모습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미시적으로는, 일본어 교육에 있어서 실천과 연구의 통합을 통해 교육 현장의 실천력을 향상하는 것, 또한 다양한 교류의 기회를 마련해 학생의 성장과 능력의 육성이 이뤄지도록 체계적인 운영이 요구된다.